

7. 선사문화의 과제와 전망

전남 동부지역은 영산강 유역과 경남지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소백산맥의 영향으로 평지보다는 산악지대가 발달되어 있다. 또 섬진강과 그 지류인 보성강이 흐르고 있는 남해안에는 리아스식 해안의 영향으로 고흥반도·여수반도 등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 및 지리적인 영향으로 국토개발이 늦어져 고고학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었는데, 최근 이곳에 다목적 주암댐이 건설되고 광양만 일대에 거대한 공업단지들이 들어서면서 국토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곳곳의 문화유적들에 대한 조사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남 동부지역의 고고학 유적 발굴조사는 구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 다양하게 실시되었다. 이러한 유적들은 각 시대에 따라 특징적인 문화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거의 시대적인 공백 없이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타지역 고고학 조사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전남 동부지역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은 후기구석기에서 중석기에 해당하는 1만 5,000년 전에서 7,000~8,000년 전 사이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에서 중석기의 문화상을 살필 수 있다. 이 유적들은 모두 강변 평지에서만 발견되고 있는데, 앞으로 동굴유적과 후기구석기보다 앞서는 전기나 중기의 유적이 발견되어야 전남지역의 구석기시대 문화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여천 송도 조개더미가 유일하다. 이 유적은 경남 남해안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고, 시기적으로 신석기 전기 말이나 중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신석기 연구와 그동안 공백으로 남아 있던 전남지역의 신석기시대 연구에 귀중한 학술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앞으로 주거지 등 생활유적이거나 무덤유적이 발견되어야 하고, 전남 내륙지역이나 영산강 유역에서 신석기 유적의 발견 또는 발굴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청동기 유적으로는 주거지와 지석묘가 있는데, 원형주거지의 경우 부여 송국리나 영암 장천리, 광주 송암동 등 서해안지역에서 발굴된 주거지들과 동일한 형태여서 이들 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 구멍무늬계 토기나 지석묘의 석검 등 부장품들은 경남 남해안 지역과 통하고 있어 두 지역의 문화가 복합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수반도를 중심으로 한 비파형동검과 옥문화가 지석묘와 결합되어 성행하였고, 또 경부가 넓고 그 끝 양쪽에 홈이 있는 유경식석검이 보성강 유역에서 다량 출토되었다.

이 유물들이 지석묘 부장품으로 사용된 점 등은 전남 동부지역 지석묘의 한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화적인 특성에서 세형동검과 관련된 유적의 확인, 비파형동검과 옥이 이 지역에서 지석묘의 부장품으로 많이 사용된 이유에 관한 문제, 지석묘 군집지역간의 상호관계 규명, 주거지 등의 생활유적과 무덤과의 관계, 영산강 유역이나 경남지역과의 관계 설정 등 많은 연구과제가 남아 있다.

철기시대에서는 주거지나 조개더미 등 생활유적들이 발굴조사되어 이 지역 철기문화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송광면 대곡리 주거지는 청동기시대부터 이어진 생활터전이어서 두 시대간의 문화적인 변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이다. 이 시대의 문화상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광묘나 옹관묘 등 무덤유적의 발견과 더불어 그당시 문화의 총체적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영산강 유역에서 성행한 전용 옹관묘와 백제 석실분의 발견과 그 분포지역의 확인, 석관묘·토광묘 등 가야계 무덤의 발견 등과 함께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

물 등으로 전남 동부지역이 고대사회에 어떤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를 밝히는 문제가 있다. 끝으로 이 지역에서의 고고학적인 활동에 대해 언급해보고자 한다. 전남 동부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활발한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표조사이다. 공사진행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고고학 유적의 조사나 보존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파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대비할 학술기관이나 전문가의 활발한 조사활동이 있어야 인멸될 유적에 대한 사후대책이 강구될 수 있다.